

Style

조선일보

FALL/WINTER
2018



MONT
BLANC 



all new Montbla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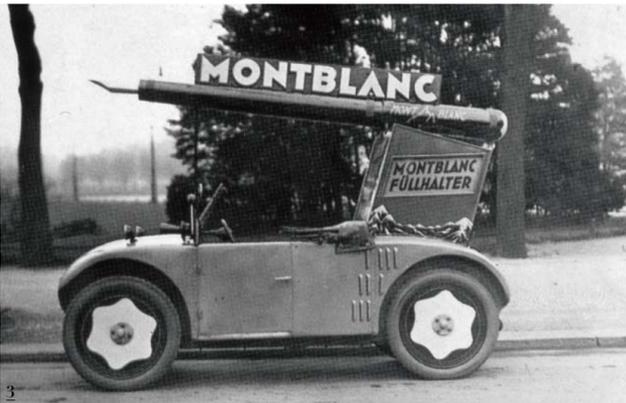
혁신과 개척 정신으로 새로운 필기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브랜드의 정신을 담은 필기구와 시계, 레더 제품, 액세서리까지 선보이며 전방위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몽블랑. 2018년 11월, 브랜드 최초 컬래버레이션의 일환으로 브랜드 모델이자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 박서준과 함께한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제 더욱 새로운 몽블랑을 만나볼 때가 된 것이다.

1906년, 만년필을 선보인 몽블랑의 특별한 시작

탁월한 기능성과 정교하고 완벽한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명품 브랜드, 바로 몽블랑이다. 이 브랜드는 시작부터 다른 브랜드와 달리 펜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케네디, 헤밍웨이 등 수많은 명사가 몽블랑 펜을 애용했다. 1906년, 함부르크 출신의 은행가와 베를린 출신의 엔지니어가 만나 몽블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함부르크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체형' 잉크 용기를 장착한 혁신적인 만년필을 생산하고, 이후 1910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몽블랑이라는 회사명을 도입했던 것이 이 브랜드의 아주 지적이고 멋진 탄생 스토리로 남게 된다. 1909년 3년간의 개발 끝에 매종의 첫 번째 만년필 제품인 루즈 앤 느외를 출시했다. 스탕달의 유명한 소설 <죄과 후>에서 영감을 얻은 이 펜은 몽블랑이 생산한 첫 번째 세이프티 펜으로, 이를 통해 매종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아주 멋지고 각 인력이 뛰어난 몽블랑 산의 눈 덮인 여섯 봉우리를 상징하는 하얀 별 모양 엠블럼(화이트 스타)은 1913년부터 몽블랑이 생산하는 모든 필기구에 장식했고, 현재는 시계와 레더, 액세서리까지 전 라인에 모두 적용해 브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이 로고는 시선을 사로잡아 한눈에 몽블랑임을 알게 하는데, 최상의 품질과 유럽 전통 장인 정신을 구현하는 몽블랑의 브랜드 가치를 상징하는 심벌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펜으로 시작한 브랜드의 역사는 1924년 전설의 명작인 마이스터스틱 만년필로 이어졌고, 그 이후 사업 분야를 확장해 가죽 제품과 시계, 주얼리까지 선보이며 보다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브랜드로 거듭났다.



스위스 기계식 시계부터 현대인을 위한 스마트 워치까지 시계 분야에서도 몽블랑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클래식 위치와 서밋 컬렉션으로 대변되는 현



1 도시 여행을 위해 탄생한 몽블랑 #MY4810 트롤리. 캐빈 사이즈부터 대형 수트케이스까지 다양한 크기로 선보인다. 2 몽블랑 스타 레거시 문메이츠 워치. 3 몽블랑의 화이트 스타 로고와 자동차 바퀴에 새겨져 있다. 이 엠블럼은 몽블랑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4 몽블랑 르 로를 워치 매뉴팩처 진정. 5 만년필에 사용하는 정교한 납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몽블랑이 숙명이자 브랜드를 대변하는 것이다. 6 피렌체에 위치한 가죽 공방에서는 오늘날도 장인들이 몽블랑의 레더 제품을 완성하고 있다. 7 몽블랑 코리아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박서준. 8 서밋 2 워치 광고 비주얼. 도시 여행을 위한 완벽한 럭셔리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컬렉션이다. 9 몽블랑은 휴대용 케이스,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가죽 소품을 선보인다. 10 펜으로 적은 것이 고스란히 디자인하는 기술을 적용한 이그먼트 페이퍼. 11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의 모든 제품. 백팩과 포트폴리오, 지갑, 비즈니스 카드 홀더, 벨트, 키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서밋 2 워치. 클래식 워치와 같은 워치 화면을 선택할 수 있다.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뛰어나다.



대적인 기능의 스마트 워치까지 모두 갖췄다. 르 로클과 빌레, 두 곳의 매뉴팩처에서 생산하는 다채로운 컬렉션은 뛰어난 완성도로 순식간에 세계업계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스타 컬렉션과 타임워커 컬렉션, 크로노그래프를 최초로 발명한 인물인 니콜라스 뤼세의 이름을 딴 뤼섹 컬렉션까지,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달려갔다.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현대 남성들을 위한 서밋 워치 컬렉션을 선보였다. 커넥티드 워치의 유아함을 재정의하기 위해 완성한 이 시리즈는 현재 서밋 2 버전까지 출시되었다. 이저립 파인 워치메이킹 기술과 최신 기술의 만남은 오랜 고객과 밀레니얼 세대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몽블랑의 브랜드 방향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서밋 2는 일과 레저, 피트니스, 여행 등 일상에서 성취의 기쁨을 확실히 새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최상의 웨어러블 기기다. 시차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타임시프터 앱과 워치 페이스를 새롭게 탑재한 것 역시 새로운 점이다. 럭셔리 스마트 워치 최초로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웨어 3100 칩셋을 적용해 성능과 배터리 수명이 모두 향상되었다. 구글의 최신 Wear OS로 iOS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몽블랑 CEO인 니콜라바레츠키는 "서밋 2는 도시의 탐험가, 비즈니스맨, 기능이 뛰어난 시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성취에 대한 욕구가 큰 이들은 언제나 세상과 커넥티드되기를 원하는 동시에 하이엔드 타임피스와 경험을 즐기고 싶어 하죠. 서밋 2는 일, 레저, 피트니스, 여행에 모두 적합한 제품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몽블랑과 박서준의 만남,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

이렇듯 뛰어난 기능과 혁신의 상징인 몽블랑이 새로운 도전을 했다. 브랜드 최초로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 박서준과 컬래버레이션해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 기존의 견고한 몽블랑 레더 컬렉션에 새로운 패턴을 더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슈를 만들기 충분하다. 매종의 상징인 블랙&화이트 컬러를 차용한 도트 패턴을 더한 디자인은 과감하면서도 트렌디하고 박서준이 디자인에 참여해 더욱 의미 있다. 몽블랑 코리아 모델 박서준이 가장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한 도트 패턴은 경쾌함을 지어낸 뿐만 아니라 도트의 컬러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 밀레니얼 세대도 선호하는 패턴 중 하나다.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구성된 것도 매력적이다. 백팩부터 지갑, 벨트 등 총 여섯 가지 레더 제품으로 구성된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이기에 소장 가치까지 더했다. 경쾌해 보이는 이 디자인 역시 몽블랑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몽블랑은 이탈리아 가죽 제품의 본고장인 피렌체 인근의 스킨디치에 가죽 공방인 펠레타리아를 설립해 전통적인 장인 정신과 최신 가공 기술을 더한 명품 레더 아이템을 선보이는데, 이번 컬렉션 역시 모두 이곳에서 생산하는 최고의 제품이다. 몽블랑 레더 컬렉션 중 특히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사토리얼 라인에 패턴을 입혀 유니크한 매력을 담았다. 1926년 몽블랑 레더 제품에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하며 시작된 사토리얼 라인은 모던한 품격의 정수를 보여주며 한국 고객들에게도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라인으로, 도트 패턴을 더한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으로 재탄생한 것. 몽블랑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브랜드 모델 박서준과의 협업으로 브랜드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고자 이번 컬렉션을 기획했다"며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랑받은 몽블랑 레더 라인 중에서 한국에서만 단독 출시하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몽블랑과 박서준의 캡슐 컬렉션은 11월 2일 롯데백화점과 몽블랑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선판매일 예정이며, 23일부터 전국 몽블랑 백화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670-4810, www.montblanc.com 에디션 배미인

MONT
BLANC



Selection

클래식부터 스타일리시한 아이템까지, 모든 매력이 공존하는
몽블랑의 키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reating new heights.

새로운 몽블랑 스타 레거시 폴 캘린더.

montblanc.com





LOOK SO COOL

검고한 레더 위에 프린트된 경쾌한 도트 패턴,
몽블랑과 박서준이 만나 완성한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
photographed by kim hyung sik



몽블랑 매종의 상법과도 같은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완성한 경쾌한 도트 패턴이 매력적인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 백팩 1백22만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영감을 받은, 밤에 담긴 웃음을 표현하기 위해 클립 위를 금빛 별로 장식한 '미아 스타스틱 르 뵘피 프라스 두에 불펜 93만원, 직경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 영롱하게 빛나는 블루 핸즈와 문패이즈를 장착한 '스타 레가시 문패이즈' 워치 5백만원대 모두 몽블랑.



스타일 지수를 높여줄,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지어내는 매트 블랙 컬러의 MY4810 트롤리. 세심하게 조질 가능한 알티 스톱 핸들 바는 물론 움직임이 부드러운 휠, 내구한 수납력을 갖춰 실용적이다. 총 다섯가지 사이즈 중 미디엄 스톱 사이즈. 1백13만원. 몽블랑 1858 워치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빈티지 디자인 코드를 집속하고 럭셔리 스마트 워치 중 최초로 팔란의 스넵드래곤 웨어 3100 칩셋을 탑재한 '사틴 2' 스마트 워치. 1백27만원 모두 **몽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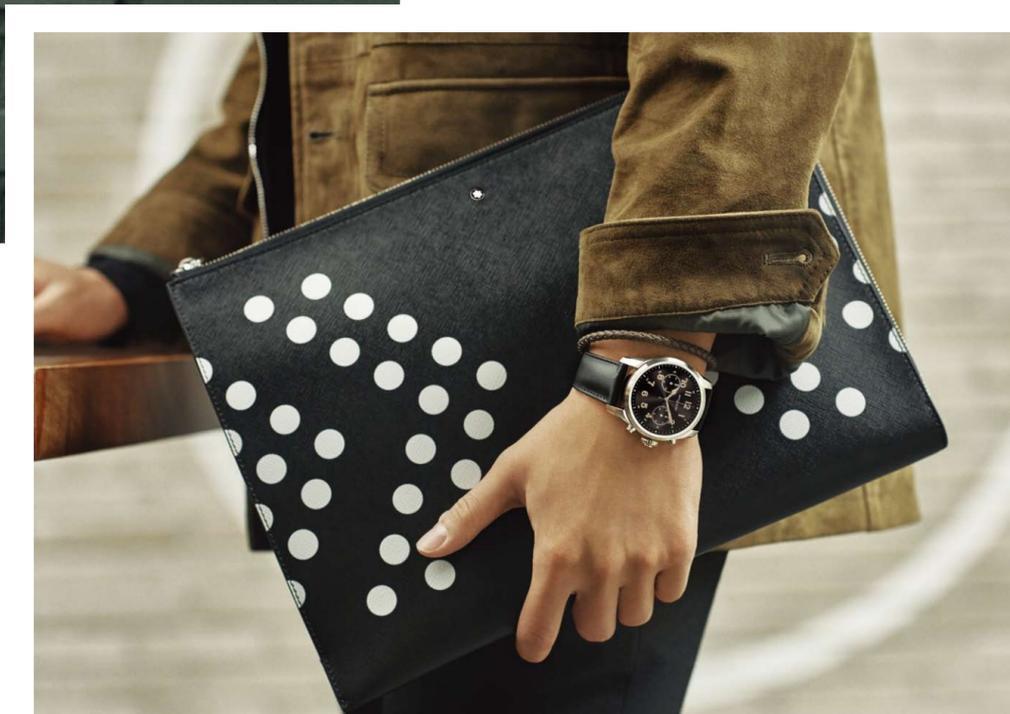


직경 42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블랙 카프 스트랩을 매치한 '사틴 2' 스마트 워치, 배우 박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패러인 도트를 입힌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 비즈니스 카드 홀더 24만원, 빈지깍 6cc 37만원, 몽블랑 크로커다일 프린트 블루 바이올렛 컬러 노트 11만원 모두 **몽블랑**.





도트 패턴을 활용해 감각적인 모티프를 완성한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 포트폴리오 74만원, 사용자의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다이얼 화면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스마트 2' 스마트 워치 모두 몽블랑.





최상의 위치제이킹 기술과
몽블랑의 전통적 디자인 요소가
결합된 '시릿 2' 스마트 워치.
네 가지 케이스와 여덟 가지 스트랩의
조합을 통해 3백여 가지 이상의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몽블랑.

문의 몽블랑 1670-4810

헤어 정미원
메이크업 달래
스타일리스트 양혜림
장소 협찬 디뮤지엄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이지연

포함된 비즈니스 룩뿐 아니라 캐주얼한
스타일링까지 아우르는, 시릿 2 에디션
대체용 몽블랑 X PS1 캡슐 컬렉션 포트폴리오,
1.392개의 아틀레트 디스플레이로 구현되는
워치 케이스를 전통 시계에서 사용하는
동근 시리아 크러스트를 글라스로 덮은
'시릿 2' 스마트 워치 모두 몽블랑.



Montblanc X PSJ Capsule Collection

몽블랑 코리아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박서준, 자신만의 유니크한 감성을 담아 브랜드 최초로 콜라베이션 제품을 선보인다. 박서준의 이름을 딴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 촬영 현장을 소개한다.

한남동에 위치한 디뮤지엄,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전시 공간에 배우 박서준이 발을 내딛었다. 몽블랑과 함께 선보인 새로운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을 위한 화보 촬영을 하기 위해서다. 밀레니얼 세대를 대변하는 배우 박서준은 이번 컬렉션과 몽블랑의 비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모델이다. 이미 지난 6월 몽블랑의 레더 제품과 워치 컬렉션을 소개하는 화보를 찍은 바 있는데, 열렬한 반응을 얻은 데 이어 몽블랑과 함께 자신의 이니셜을 딴 컬렉션까지 선보이게 된 것. 드라마 <김미서가 왜 그랴까>와 예능 <음식당 2>를 통해 대중적인 명성을 얻는 것을 넘어 최고의 스타로 거듭난 박서준은 깔끔한 스타일과 부드러운 미소로 현장을 사로잡았다. 배우 박서준은 촬영을 위해 착용한 서밋 2 위치에 관심을 보였는데, 촬영 중간중간 몽블랑의 스마트 워치인 서밋 2를 작동해보며 기능을 탐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은 박서준의 이름을 딴 컬렉션이기에 더 특별하다. 평소 좋아하는 도트 패턴을 사피아노 가죽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박서준이 디자인에 참여한 결과, 경쾌하고 새로운, 밀레니얼을 위한 새로운 컬렉션이 탄생하게 된 것. 최근 남성들의 필수품이 된 백팩과 어느 장소에서나 어울리는 포트폴리오, 트렌디한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지갑 및 비즈니스 카드 홀더와 키링, 도트 패턴을 더해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벨트까지, 실용적인 제품으로 이루어졌다.



1 디뮤지엄 전시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배우 박서준.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 백팩을 착용하고 있다. 배우가 감상하는 전시는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라는 전시명으로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예술가들의 사진전이다.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의 타깃인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전시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 2, 12 셀피를 촬영하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배우 박서준. 박서준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은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3, 13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 포트폴리오를 가볍게 들고 있는 모습. 도트 패턴은 평소 박서준이 좋아하는 모티프이기도 하다. 4, 5, 6 몽블랑의 클래식 아이템인 벨트 워치. 7 표지 촬영 중인 박서준. 8, 14 촬영장에서도 계속 이어진 박서준의 미소는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9 지갑과 비즈니스 카드 홀더 등 몽블랑 x PSJ 캡슐 컬렉션의 스몰 레더 제품들. 10, 11 몽블랑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해 첫선을 보이는 #MY4810 트롤리. 미니 셀로 자신만의 기쁨을 제작할 수 있다.



Star Legacy collection

(오른쪽 위) 실용적인 카를 워치, 스타 레가시 데이트 오토매틱 42mm 4백13만원, 스타 레가시 스몰 세컨드 36mm 4백21만원 모두 몽블랑.

(왼쪽 아래) 레더 스트랩을 더해 더욱 클래식한 스타 레가시 문레이즈 42mm 5백28만원, 스타 레가시 스몰 세컨드 다이아몬드 32mm 6백1만원 모두 몽블랑.



Star Legacy collection

(왼쪽부터) 하이엔드 워치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스타 레가시 풀 칼린더 5백68만원, 스타 레가시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5백33만원 모두 몽블랑.



1858 collection

(왼쪽부터) 브라운 스트랩이 클래식한 1858 오토매틱 3백33만원, 스트라이프 나토 스트랩을 매치한 1858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5백33만원 모두 몽블랑.



Bohème collection

(왼쪽부터) 이자적인 매력을 담은 우아한 여성 워치인 보헴 데이트 오토매틱 34mm 3백73만원, 보헴 데이 앤 나잇 30mm 3백36만원 모두 몽블랑.

the Perfect Gift

지적이고 품격 있는 선택,
몽블랑 워치&펜&레더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ONT
BLANC 



Creating new heights

탐험 정신을 담아 새롭게 선보이는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montblanc.com/1858